

제 107회 목포시 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3년 7월 7일 상오 11시 25분

2. 폐 의 : 단기 4293년 7월 7일 하오 2시 25분

3. 장 소 : 목포시 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경인

5. 출석 의원

재적 16명 중 출석의원 15명

결석 강영락 의원

6. 출석 공무원

시장 이종수 외 각 과장

7. 의사 일정

◆보고사항

(1) 제 106회 제 1, 2, 3, 4, 5, 6차 회의록 통과

(2) 기타

◆부의사항

(1) 중앙 도매시장 관계 청원서 처리의 건

(2) 산정동 공동묘지 이전의 건

8. 토의 사항

(1)개회식 거행 (식순 생략)

(2)제 106회 제 1, 2, 3, 4, 5, 6차 회의록 통과

◇서기 주 도 식

- 낭독하다. 이의 없으므로 통과하다.

◇임 석 희 의원

- 어제 산정 국민학교에서 정중섭 의원이 개인정견 발표를 하는 석상에서 자유당의원 3, 4명이 상대이전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이전 투쟁을 하였다고 발언하였으니 이는 의원이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이를 조사할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조 양 순 의원

- 임석희 의원의 말씀에 시의회 절충단이 상대 이전을 지지하였다는 말씀은 착오가 아닌가 한다.

◇임 석 희 의원

- 방금도 말씀 드린바 있으나 더 세밀하게 말씀 드리고자 한다. 어제 산정 국민학교 교정에서 개인정견 발표를 하면서 자유당 시의원 3, 4명이 상대 이전에 찬성하였다는 말과 3.15선거 당시 자유당 시의원 모 인이 상경하여 상대가 광주로 이전하여야 이 대통령 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였다.

◇김 상 대 의원

- 정중섭 의원 발언에 대하여 조양순 의원은 부인하고 임석희 의원은 들었다고 하니 이를 의제로 채택 상정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중섭 의원 상대 이전 반대 관계 발언 내용 조사에 관한 건

◇김 경 인 의장

- 의안 상정을 선언하다.

◇김 성 균 의원

- 과거나 지금도 자유당이다. 자유당이 3.15 관계로 큰 죄를 범하여 이 사람도 죄인의 한사람으로써 할 말은 없으나 그제 북교 국민학교 교정에서 개인정견 발표를 통하여 자유당 시의원 3, 4명이 상경하여 나관수 의원과 인접

모 의원에게 상과대학 이전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 공작을 해서 나판수 의원과 인접 모 의원은 이전 공작을 했다는 것과 3.15 선거전에 자유당 시의원 모 인이 상경하여 상과대학이 복귀하면 정, 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표가 많이 나오게 되니 오히려 광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공작을 하였다는 발언을 하였는바 자유당 시의원이 그런 사실이 없으니 해명을 완전히 하여야 하며 정중섭 의원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김 상 태 의원

- 제가 정 의원 개인정견 발표시 사회를 하였으나 김성균 의원 말씀에 중간 몇 가지 착오가 아닌가 한다. 자유당 시의원 몇 분이 정, 유 의원을 불신하고 나판수 의원과 상대 광주이전 반대 운동을 전개할 당시 시의원이 이전운동을 하였다는 말이 아니고 나판수 의원이 광주이전에 찬성하다시피 하여 결과적으로 찬성이 되었다고 들었으며 3.15 선거전에 한 일은 시의원이 아니고 시당간부라고 들었으니 오해 없기를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상대 이전 반대 투쟁에 있어서는 여야가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 왔었는데 정중섭 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하였음은 중대문제이니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5명의 조사위원을 구성할 것을 동의하며 그 인선은 의장에게 일임한다.

◇김 상 태 의원

-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선거운동이 아닌가 한다. 의장직권으로 저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 성 균 의원

- 김창희 의원 발언에 찬성하다.

◇정 응 표 의원

- 자유당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상대문제 정 의원 발언 내용을 들으니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상대 문제 발단 이 후, 부의장직에 있었으므로 김삼성씨와 수차 상경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단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가 총망라해서 추진하였는데 자유당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 출장 결과는 반드시 보고하였으며 그 때 마다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은 없다. 따라서 과오가 없었음을 말씀 드린다.

◇김 남 진 의원

- 상대문제로 출장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기 바란다.

◇김 상 태 의원

- 안타깝다. 상대를 이전기로 된 것은 자유당 정책으로써 결정된 것이 아니냐?

◇김 상 대 의원

- 본 건에 이어 김상태 의원의 말씀은 자유당 정책이라고 하나 시당발전을 위해 상대 광주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확실히 규명할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김 삼 성 의원

- 상대이전 반대에 있어서는 거시적으로 여야가 혼성해서 추진하여온 것인데 나관수 의원과 3, 4시의원이 상대이전을 찬성하였다고 하나 당시 6명이 상경하여 나관수 의원과 전남 출신 11명 의원으로부터 날인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였다. 그 외에도 수십 차 절충하였으나 실패하였지만 상대이전에 협조를 하였으면 조사 결과 나타날 것이니 토론을 중지하고 조사단 구성할 것을 동의하다.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동의 성립되다.

◇천 철 수 의원

- 조사단 구성에 있어 5명은 부합되리라 보니 7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집에서 수락하여 주기 바란다. (동의집 수락함) 동의를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조사위원으로 정응표, 김성균, 이정권, 김삼성, 김상태, 조양순, 김남진 의원 등 7명을 지명하다.

◇김 경 인 의장

- 오전 회의 정회를 선언하다.

(하오 12시 52분)

◇김 경 인 의장

- 속개를 선언하다.

(하오 1시 30분)

※중앙 도매시장 관계 청원서 처리의 건

◇김 창 희 의원

- 중앙 도매시장에 있어서는 중앙 도매시장 법을 적용시켜 개설하였다. 앞으로 그대로 존속하되 상인이 자진신고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진정 내용의 업자들은 일괄 도매시장에 가입해야 된다. 회사측과 업자들 간에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 시장이 이를 조절해서 쌍방의 조절을 원만히 해결하기 바라며 몇몇 상인들이 결속하며 자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니 집행부에, 시정케 하도록 건의하고자 한다.

◇이 정 균 의원

- 어제 좌담회에서 들었다. 조사위원회에서 건의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건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김 창 희 의원

- 작년도에 19만환 정도의 수입이란 의아스럽다. 집행부 감독이 불철저하니 주재직원을 뒤 지도 감독을 당하게 하도록 건의하고자 하오니 조사단에 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 정 권 의원

-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 앞으로 상인이 직접 운영할 것과 계약조문에 시 지시에 불응시는 해약토록 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주기 바란다.

◇김 남 진 의원

- 도매시장 운영에 있어 법을 초월해서 쌍방간에 적당히 합의하에 업무규정을 무시하고 운영하여 왔음은 감독 불철저로 그런 결과가 났을 것이다.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근본원칙을 살려 가급적 대량 물품 판매자에게 도매시장 법을 적용시키도록 감독을 하기 바란다. 이정권 의원의 말씀에 뜻을 박으라는 것은 법이 있어 어색하니 현재분규 조정하도록 동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며 도매시장이 폐지되더라도 도매행위가 존속할 것이니 법과 조례가 있는 이상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김 성 균 의원

- 중앙 도매시장을 도시에 개설한 근본취지와 목적을 살려야 할 뿐 아니라 작년부터 활발하게 운영되어가니 앞으로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바라며 도매시장에 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도, 소매의 한계 등 테두리를 정하여 건의하기 바란다.

◇김 경 인 의장

- 본 건 이의 없음으로 조사 위원회에서 문안을 작성하여 건의하도록 일임할 것을 선언하다.

※산정 공동묘지 이전의 건

◇김 남 진 의원 보고

- 산정동 공동묘지가 6필지인데 1,997평이다. 2평당 묘가 1개로써 현재 약 10,000기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전 비용이 묘 당 2,000환으로써 합계 2천만 환이 소요하나 그 중 유연(고)분묘가 5천기임으로 나머지 무연(고)분묘가 5천기 이니 실지 소요경비가 1천만환이나 6개월 후인 명년에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금년 전예산에는 공고로써 360,000환과 사무비로 40,000환 합계 400,000 환 소요된다. 옥암리 공동묘지 50,000여평이 있으며 5,000기 이상하는데 필요평수가 10,000평 내외며 무연분묘 이장보관지가 1~2,000평 필요하게 되는 것이며 선정동 묘지 20,000평 중 개인 소유 전10,000여평을 제외하면 10,000

여평이며 이 시세가 평당 2,000환이다. 본 건을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건 의서를 제출하였다.

◇시장 이 종 수

- 본 건에 있어 아직 도에 진달하지 못하였으나 추진 위원회의 건의를 뒷받 침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 정 권 의원 긴급동의

- 방출미 방출문제를 들으니 대상자가 호별세 5등 이하세대가 아니라는 말 이 들리니 이를 질의 할 것을 동의한다. 재청, 삼청이 들어오다.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성 균 의원 긴급동의

- 정 의원이 영구차를 구입할 것을 발의하여 예산조치까지 하였으나 아직 미결이니 영세시민을 위하여 특히 임기 말이니 집행부와 상의하여 조속 추 진하도록 3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동의하다. 재청, 삼청이 있었다. 표결에 부친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김 경 인 의장

- 본 건 추진위원으로 김성균, 정응표, 조양순 의원 등 3인에게 일임추진하 게 할 것을 선언하다.

◇시장 이 종 수 답변

- 곡가조 절용으로 도에서 당 시에 배당되어 호별세 등 이하 곤궁민이 7,787세대로써 38,616명인데 호별세 등 이하세대에게 7월 1일부터 5일분씩 3 회로 나누워 15일분을 배급하고자 한다.

◇이 정 권 의원 질의

- 인구배정에 있어 호별세는 무시하고 인구수에 3할로 배정하였다는데 그 이유여하.

◇명 남 철 의원 질의

- 비부과 세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시장 이 종 수 답변

- 호별세 5등 이하세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비부과 세대도 포함되었다.

◇김 상 태 의원

- 3.15 선거전에 배급도 5등 이하나 20등부터 30등까지도 배급하였으니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시장 이 종 수

- 잘 하겠다.

◇김 경 인 의장

- 폐회 선언하다.
- 폐회식을 거행하다. (식순 생략)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에 서명 날인 함

단기 4293년 7월 8일

시의원 김창희

시의원 김상태

작성자 서기 배문봉